



서비스 안내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대상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가,나,다)유형 이용시 : 양육수당 미지급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활동 제외)

☑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9,89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7,912원(80%)	1,978원(20%)
나형	120% 이하	5,934원(60%)	3,956원(40%)
다형	150% 이하	1,484원(15%)	8,406원(85%)
라형	150% 초과	-	9,890원(100%)

※정부지원시간(가~다형) : 월 60시간~월 200시간 이내 지원/1회 3시간이상 신청(추가 최소 30분단위)

●●● 시간제·종합형 돌봄서비스 ●●●

대상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 등 하원, 안전·신변보호처리,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 종일제 업무가 병행됩니다.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결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시간당 9,890원)		종합형(시간당 12,860원)			
		A형 (2013.11.이후 출생)	B형 (2012.12.31.이전 출생)	A형 (2013.11.이후 출생)	B형 (2012.12.31.이전 출생)	A형 (2013.11.이후 출생)	B형 (2012.12.31.이전 출생)
가형	75% 이하	8,407원 (85%)	1,483원 (15%)	7,417원 (75%)	2,473원 (25%)	8,407원	4,453원
나형	120% 이하	5,440원 (55%)	4,450원 (45%)	1,978원 (20%)	7,912원 (80%)	5,440원	7,420원
다형	150% 이하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1,376원
라형	150% 초과	-	9,890원 (100%)	-	9,890원 (100%)	-	12,860원

※정부지원시간(가~다형) : 년 720시간 이내 지원/1회 2시간이상 신청(추가 최소 30분단위)

●●● 질병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

대상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노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1,860원)			
		A형 (2013.11.이후 출생)	B형 (2012.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081원(85%)	1,779원(15%)	8,895원(75%)	2,965원(25%)
나형	120% 이하	6,523원(55%)	5,337원(45%)	5,930원(50%)	5,930원(50%)
다형	150% 이하	5,930원(50%)	5,930원(50%)	5,930원(50%)	5,930원(50%)
라형	150% 초과	5,930원(50%)	5,930원(50%)	5,930원(50%)	5,930원(50%)

※ 긴급신청가능 : 1회 2시간 이상 신청(추가 최소 30분 단위)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절차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가정의 신청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 추후 진단서 또는 처방전 중 1부와 시설 미이용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
- 제공되는 서비스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에 돌봄 활동을 할 수 없음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에 돌봄서비스 제공 불가

●●●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

대상연령 : 만 0세 이상 ~ 12세 아동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기관유형	지원 시간	요금 체계(시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	기관부담
·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사회복지관 · 그 외 기관 예)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지원 시간 제한 없음	16,740원	-	16,740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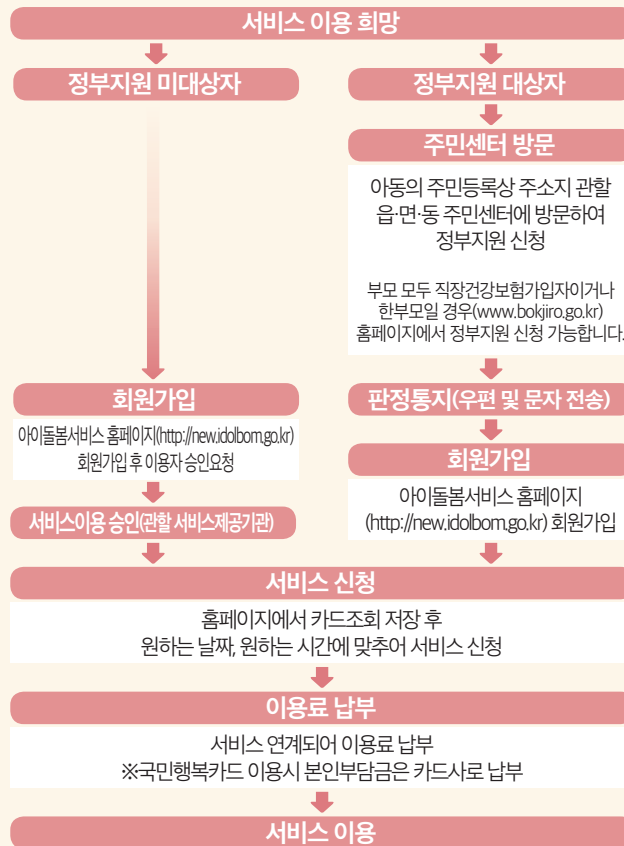
※ 교통비는 기관 부담(신청기관 부담, 교통비는 대중교통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센터(서비스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아동연령	만 0세~2세이하	만 3세이상~12세	주의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최대 3명	최대 5명	아이돌보미는 만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서비스 신청방법·절차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카드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 가정 내 1:1 양육

소득기준	정부지원여부		
	시간제	종일제	
	A형	B형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가형	지원	지원	지원
나형	지원	지원	지원
다형	지원	지원	지원
라형	정부미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사례 아이들의 두 번째 엄마

| 2019년 충남 수기공모전 최우수작

저는 아홉 살, 다섯 살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저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본의 아니게 경단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둘째가 다섯 살이 되어서야 직장을 끝냈습니다. 다행히 원하던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두 아이들이 걱정이었지요. 둘째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방설유치원에 합격했지만 5시에 하원하는 바람에 큰애가 둘째를 하원시켜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두 시간 남짓 돌봐야만 했으니까요. 5시가 넘으면 아이들이 잘 못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몸은 회사에 있어도 마음은 늘 불안한 속에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략)

이 아이들을 고생시키려고 일을 하는 게 정말 잘 하는 걸까, 아직 어린 둘째 옆에 엄마가 필요한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을 하고 몇날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주변 분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고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마른 사막에 폭포수처럼 한줄기 희망이 보였고, 센터에 문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돌보미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던 4월의 어느 날 정말이지 기적 같이 그렇게 저는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중략)

“앞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희들과 잘 놀아주시고, 엄마가 회사에서 늦게 오면 선생님이 저녁도 챙겨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장난감도 같이 놀아주시고 거야~ 좋지요?” 둘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언제 수줍었냐는 듯 한 시간이 지나니 입을 꼭 닫고 있던 큰애도, 엄마 뒤에 숨어있던 둘째도 “선생님, 저랑 같이 자동차 놀이해요, 책 읽어주세요~” 하며 선생님과 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면서 엄마인 저보다 더 엄마처럼 대해주시고 아이들이 행동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아낌없이 칭찬해주시며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에도 희망을 주셨습니다. (~중략)

저는 아이돌보미서비스 때문에 지금까지 회사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근하는 날에도 선생님이 저녁도 챙겨주시고 아이들이 지금 무얼 하는지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큰아이 숙제도 같이 봐주십니다. (~중략)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맡길 곳이 없어 결혼 후 경단녀가 된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아이 키우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는 아이 옆에서 항상 있지는 못합니다.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아이들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쓰르고 미안한지 엄마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중략)

아이들은 엄마처럼 선생님을 따르고 엄마들은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엄마처럼 보살펴주는 두 번째 엄마~

바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